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5-10-3
(공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 「S T A R 전략」 -

2025. 3. 19.

관 계 부 처 합 동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요약)

I 추진 배경

□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국가간 주도권 경쟁 심화

- (수출경쟁 심화) 작년 총 수출액은 '23년 대비 8% 증가하였으나,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 등 첨단·핵심산업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하락*

* 13년→23년(%) : 반도체 6.8→6.3, 조선 22.7→14.3, 디스플레이 11.3→7.5, 이차전지 6.4→4.2 (한경협)

□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요구

- (보세가공제도*)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산업의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 비율**은 90% 수준으로 매우 높음

*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가공 후 수출입할 수 있는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말함

** 첨단·핵심산업별 보세가공 활용 수출 비율: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디스플레이 85%

- (핵심산업 요청) 관세전쟁 등 수출환경 변화 대응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 수출지원 제도인 보세가공제도의 과감한 규제혁신 요구

II 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4대 전략 16개 과제)

【S T A R 전략 : Start-up, Transportation, Autonomy, Reduction】

① S 신규 부가가치 창출

- ◆ 시제품·연구물품 반출입 간소화
- ◆ 거대 장비·원자재 부두 보관기한 폐지
- ◆ 중량 단위 물품의 분할·합병 관리 허용
- ◆ 블렌딩 석유 과세표준신고 간소화

② T 물류 혁신

- ◆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완화
- ◆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
- ◆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 검사 허용
- ◆ 원재료 입항 전에 장외작업장 사용신고 허용

③ A 자율관리 확대

- ◆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 ◆ 보수작업 범위 확대 및 승인 생략
- ◆ FTZ 우수업체에 자율관리혜택 부여
- ◆ 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④ R 비용·부담 경감

- ◆ 잔존물품 관리 간소화
- ◆ FTZ 생산품 원료과세 도입
- ◆ FTZ 생산품 혼용비율 과세 도입
- ◆ FTZ 반입 내국물품 반품 시 수입신고 생략

(Start-up) 보세가공 활용 신규 부가가치 창출

① 시제품·연구물품의 연구·개발 절차 간소화

-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세공장의 시제품·연구물품을 연구개발부서로 반출입 시 과세보류 상태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현행) 보세공장과 연구개발부서 간 제품 이동 시 일일이 수입통관 후 반출입

② 조선·항공·플랜트 등 거대·중량산업 유치 지원

- 조선·항공·플랜트 산업 유치를 위해 보관기간이 3개월로 제한된 FTZ 부두 중 거대화물 보관이 가능한 벌크 부두의 보관기한 폐지

③ 자유무역지역·종합보세구역 중량 단위물품의 분할·합병 허용

- FTZ·종합보세구역에서 분할·합병 관리 가능한 물품을 수량단위 화물에서 중량단위 화물로 확대하여 핵심원료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유치

④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시 과세표준신고 간소화

- 3종 서식의 과세표준신고를 '제품출납 상황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Transportation) 신속한 보세가공을 위한 물류 혁신

①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완화(15km→30km)

-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의 거리제한 완화로 보세공장 증설 및 신고 없는 신속한 물류 지원

② 우수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

- 법률 위반내역이 없는 우수업체는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시 반출입 횟수에 관계 없이 자동수리될 수 있게 보세운송 특례 요건 완화

③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 검사 허용

- 장외작업장 생산 제품을 원보세공장으로 운송하지 않고, 장외작업장 관할세관에 수출입신고 및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이동 방지

④ 원재료 입항 전에 장외작업장 사용신고 허용

- 장외작업장에서 원재료의 신속 사용을 위해 원재료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Autonomy] 우수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

①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 보안에 민감한 K방산 등도 자율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열람권한 제공 대신 '열람 보장 약약서' 제출로 지정 요건 완화

② 보수작업 범위 확대 및 우수업체 승인(신고) 생략

- 세번 변경이 없는 단순부착·성능검사 등을 보수작업으로 확대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동일·반복 보수작업에 대한 승인절차 생략

③ 자유무역지역 우수업체에 자율관리혜택 부여

- FTZ 입주업체가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체계 등을 갖출 경우, 보세공장과 동일한 자율관리 혜택을 부여하여 제조·가공 효율성 향상

④ 세관에 대한 보고 및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 촉박한 보고·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자율점검 정확성 향상 및 부담 경감

[Reduction] 비용 및 물품관리 부담 경감

① 잔존물품 관리 간소화

- 내·외국물품별로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잔존 원재료·포장재에 대해, 설계도상 손모량에 의한 재고관리를 허용하여 관리 부담·비용 감축

②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한 원료과세 도입

- FTZ 생산 제품 수입통관 시 제품이 아닌 원재료의 세번과 가격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세금부담 경감

③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한 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도입

-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를 혼용하여 생산된 제품 수입통관 시 외국 원재료의 가격 비율로 과세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개선

④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 국내 반품 시 수입신고 생략

- FTZ에 납품한 물품을 국내 반품 시 관세납부 없이 반출가능하게 개선

순 서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향	2
III. 추진과제	3
1. 보세가공 활용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3
①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3
② 조선·항공·플랜트 장비·원자재 등의 부두 보관기한 폐지	4
③ 자유무역지역 중량 단위 거래 물품의 분할·합병 허용	5
④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신고 간소화	6
2. 신속한 보세가공을 위한 물류 혁신	7
①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완화(15km→30km)	7
② 우수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	8
③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검사 허용	9
④ 장외작업장 원재료 직반입 시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10
3. 우수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	11
①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11
② 보수작업 범위 확대 및 우수업체 승인(신고) 생략	12
③ 자유무역지역 우수업체에 보세공장 수준 자율관리혜택 부여 ..	13
④ 세관에 대한 보고 및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14
4. 비용 및 물품관리 부담 경감	15
① 잔존물품 ^{잉여물품} 관리 및 과세방식 간소화	15
②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료과세 도입	16
③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도입 ..	17
④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 국내 반품 시 수입신고 생략	18
IV. 향후 추진계획	19

I. 추진배경

① 美트럼프 시대 수출환경 급변 및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 심화

- **【수출】** '24년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수출도 전년 대비 35% 증가

* '24.12월 전체 수출 6,837억불 중 보세가공 수출 2,189억불(수출비중 32% 차지)

- **【수출환경 급변】**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美트럼프 시대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첨단산업의 국가간 주도권 경쟁 심화로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

* 美 보편관세 부과 등 관세전쟁 촉발, 對中 견제,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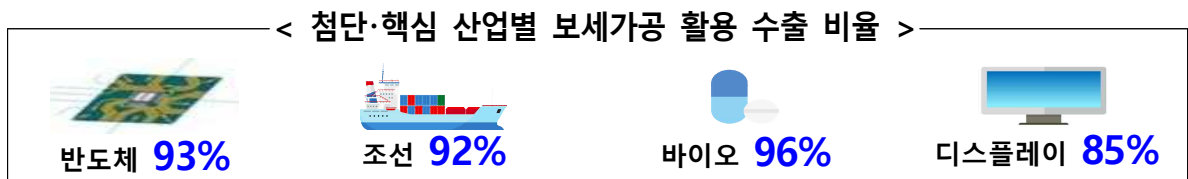
** 13년→23년(%) : 반도체 6.8→6.3, 조선 22.7→14.3, 디스플레이 11.3→7.5, 이차전지 6.4→4.2 (한경협)

② 보세가공제도는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의 중추적 역할 수행

- **【보세가공】** 관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로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제도가 있음

* 업체 수('24.12월) : 보세공장 156개, 종합보세구역 73개, 자유무역지역 485개

- **【활용】**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별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 비율은 90% 수준으로 매우 높음



③ 업계는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요청

- **【업계요청】** 첨단·핵심산업의 수출환경 변화 대응과 수출 점유율 회복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 요청

* 업계 건의 : 신속한 제조·가공 지원, 신규 물류산업 지원, 비용·부담 절감, 자율관리 확대 등

◆ 수출환경 변화 대응과 수출 점유율 하락 극복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지원 전략」 추진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

⇒ **S**신규 부가가치 창출, **T**물류혁신, **A**자율관리 확대, **R**비용·부담 경감 추진

* Start-up, Transportation, Autonomy, Reduction

II. 추진방향

목표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

STAR
전 략

S신규 부가가치 창출, **T**물류혁신, **A**자율관리 확대, **R**비용·부담 경감
* Start-up, Transportation, Autonomy, Reduction

4 대
전략

16 개
추진
과제

1. 보세가공제도 활용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 ①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 ② 조선·항공·플랜트 장비·원자재 등의 부두 보관기한 폐지
- ③ 자유무역지역 중량 단위 거래 물품의 분할·합병 허용
- ④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신고 간소화

2. 신속한 보세가공을 위한 물류 혁신

- ①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완화(15km→30km)
- ② 우수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
- ③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 검사 허용
- ④ 장외작업장 원재료 직반입 시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3. 우수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

- ①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 ② 보수작업 범위 확대 및 우수업체 승인(신고) 생략
- ③ 자유무역지역 우수업체에 보세공장 수준 자율관리혜택 부여
- ④ 세관에 대한 보고 및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4. 비용 및 물품관리 부담 경감

- ① 잔존물품^{잉여물품} 관리 및 과세방식 간소화
- ②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료과세 도입
- ③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도입
- ④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 국내 반품 시 수입신고 생략

Ⅲ. 추진과제

1. 보세가공 활용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①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 보세공장에서 원재료·시제품 등을 신속·간편하게 연구·시험한 후 본 공정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장소 확대

□ **[현 황]** 보세공장에서 원재료·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해야 함

○ 다만, 해당물품을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하는 경우 간소한 방법(장외작업 절차* 준용)으로 반출입 가능

* 자율관리장외작업장소 등록(장외작업 허가 같음) → 자체 기록관리 → 매분기 반출입내역 제출

□ **[문제점]**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도 연구·시험용 물품이 사용되나, 간소한 방식으로 반출입이 불가능하여 수입통관 후 반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증된 연구개발 전담부서

○ 휴일·야간에 불량 발생 등에 따른 원인 파악 등 긴급 연구·시험 상황 발생 시 수입통관 불가로 물품 반출 및 긴급 대응 곤란

□ **[규제혁신]**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도 간소한 반출입절차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연구·시험용 물품 간소한 반출입 적용 대상	자율관리보세공장의 ① 기업부설연구소	자율관리보세공장의 ① 기업부설연구소 + ②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대효과]**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대응 등

■ **[가상 사례]** 자율관리보세공장 S사는 신제품 생산을 위한 시제품을 개발·검증부서로 반출 시 수입통관을 거쳐야 해서 검증 후 제품 양산 공정 돌입이 지체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물품 반출입이 간소화되면서 시험·연구, 신제품 개발, 불량 원인 분석 대응이 빨라짐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2 조선·항공·플랜트 장비·원자재 등의 부두 보관기한 폐지

◇ 조선·항공·플랜트 장비 및 원자재를 보관하는 FTZ내 부두에 대하여 보관 기한을 폐지하여 첨단·핵심 산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

- **[현 황]** FTZ는 외국물품의 보관기한이 없으나,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 일부지역은 신속한 물류처리 등을 위해 3개월까지만 보관 가능

부산항	북항	부산항터미널(주), 신선대CY
	신항	제1부두 ~ 제7부두, 다목적부두
인천항	내항	제1부두 ~ 제8부두
	남항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 **[문제점]** 조선·항공·플랜트 장비와 원자재 등은 거대 부피·중량 및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관장소 물색 곤란

- 부산 신항 다목적부두 등 일부 Bulk 화물 취급 재래부두* 등은 상기 장비·원자재 보관장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보관기간 제한으로 한계

* 반입 물량 감소로 신속한 물류 반출 보다는 추가적인 물량 유치 필요

- **[규제혁신]** FTZ내 보관기간 제한 부두 및 화물터미널 중 신속한 물류 반출이 불필요한 곳은 운영인 등의 의견 수렴 후 보관기한 폐지

- 첨단·신규 핵심산업의 거대·중량 장비·원자재 보관장소로 활용 지원

구 분	현 행	개 선
FTZ내 보관기간 제한 지역	신속한 물류 반출이 필요한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의 일부 지역	신속한 물류 반출 필요성이 없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 (예 : 부산 신항 다목적부두)

- **[기대효과]** 보관기한 폐지로 거대 부피·중량 물품의 장기 보관 등이 필요한 조선·항공기 수리 등 지원 및 신규 물류 수요 창출

■ **[가상 사례]**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 운영인은 컨테이너 장치율 감소로 플랜트 장비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플랜트 화물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데 반해 부두 보관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화물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보관기한 폐지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져 신규 화물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자유무역지역, 중량 단위 거래 물품의 분할·합병 허용

◇ 자유무역지역 물류창고에 반입한 제품·원재료에 대해 중량 단위로 분할하거나 합병해서 거래·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새로운 물류산업 육성 지원

□ **【현 황】** 자유무역지역(FTZ)에서 물품을 분할·합병하여 관리(사용소비 신고*)할 수 있는 물품은 개수 단위로 관리가 가능한 물품으로 한정됨

* 사용소비신고 전후 예시 : (전) 2BOX(50개), 1BOX(30개) 반입 시 2BOX, 1BOX 단위만 보관·반출 가능 → (후) 80개로 통합 보관 및 날개 단위로 반출 가능

○ 주로 FTZ의 복합물류업체·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에서 사용 소비신고 후 개수 단위로 분할·합병(재포장) 후 수출입

□ **【문제점】** 핵심원료, 커피 등 중량 단위로 거래되는 Bulk 화물은 분할·합병 관리 불가능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유치 곤란

* 예시 : 고급 커피 생두를 외국에서 반입하여 분할·합병하거나 로스팅한 후 수출입

□ **【규제혁신】** 중량 화물도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사용소비신고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FTZ 분할·합병 대상	① 수량 단위 관리 가능 물품	① 수량 단위 관리 가능 물품 + ② 중량 단위 관리 가능 물품

□ **【기대효과】** FTZ에서 Bulk 화물·액체화물 등에 대하여 분할·합병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국내 유치 기대

■ **【가상 사례】** 2차전지 핵심원료 공급업체 A사는 핵심원료들을 중량 단위로 분할하거나 재포장해서 내·외 업체에 공급하거나, 1차 가공해서 수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 **【추가 혁신】** 종합보세구역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허용

○ FTZ에 한정된 전자상거래 GDC 입주지역을 종합보세구역까지 확대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유치 활성화

구 분	현 행	개 선
GDC 가능 지역	FTZ 공항·항만 및 배후단지	FTZ 공항·항만 및 배후단지 + 공항·항만 배후단지의 종합보세구역

4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신고 간소화

◇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석유를 블렌딩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복잡한 과세표준신고를 간소화하여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활성화 지원

□ **[현 황]** 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를 블렌딩 후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함

* 기재부·국세청과 협의결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업무협약 완료('24.7.11)

** 과세표준신고서(세액 산출 필요) + '과세물품 반출 명세서', '제품 출납 상황표' (총 3종)

□ **[문제점]** 종합보세사업장의 블렌딩 수출은 개소세 등이 면세되므로 세액산출이 불필요하고, 반출입도 각 건별로 즉시 신고하고 있으나,

○ 익월말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등 3종 서식에 과세·면세액과 반출입 내역을 다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규제혁신]** 과세표준신고 3종 서식 중 '제품 출납 상황표' 만 제출* 하도록 하고, 서식을 블렌딩 수출에 맞게 개선·간소화

* 면세 대상이므로 불필요한 '과세표준신고서'와 반출입 신고로 대체 가능한 '과세 물품 반출 명세서' 는 제출 생략

구 분	현 행	개 선
종합보세구역 과세표준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과세·면세액 산출) ② 과세물품 반출 명세서 ③ 제품 출납 상황표	① 제출 생략 ② 제출 생략 ③ 제품 출납 상황표 (서식 개선·신고 간소화)

□ **[기대효과]**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신고 간소화를 통해 종합보세 구역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활성화 지원

■ **[가상 사례]** 오일탱크 H사는 개소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국산석유 블렌딩 수출 사업 추진을 망설이고 있었음
이번에 불필요한 과세·면세 내역 제출이 생략되고, 제품수불상황표 작성도 간소화 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을 시작할 수 있었다.

2. 신속한 보세가공을 위한 물류 혁신

1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완화 (15km 이내 → 30km 이내)

◇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의 거리제한 완화로 보세공장 증설 및 세관신고 없는 신속한 화물 이동 지원

□ **[현 황]**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이 직선 15km 이내인 경우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받아 통합관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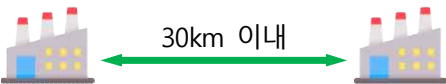
○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간주되므로 보세운송·반출입신고 등이 없이 자유롭고 신속한 물류 이동 가능

□ **[문제점]**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 포화 등 가용 부지 부족으로 기존 보세공장과 15km 이내에 보세공장 증설 불가능 사례* 발생

* 울산 H사는 15km 이내 신축부지 부재로 경주에 신축 예정 → 단일보세공장 불가

○ 단일보세공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합관리능력을 갖춰도 보세운송·반출입신고 등 모든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화물 이동 지체

□ **[규제혁신]** 거리제한 요건을 기존 15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단일보세공장 거리 요건		

□ **[기대효과]** 단일보세공장 증설 용이,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물류이동에 따른 수출물품 제조·가공 기간 단축

■ **[사례]** H조선사는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이 30km 이내로 완화됨에 따라, 이번에 신축 중인 제2공장을 기존 보세공장의 단일보세공장으로 증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H조선사는 두 공장간에 통합관리로 보세운송·반출입신고 없이 자유로운 물류 이동이 가능해졌고, 수출 선박 제조도 앞당길 수 있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

2 우수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

◇ 보세공장 간 원재료·제품 등 이동 시 반출입신고를 겸한 보세운송신고의 자동수리 조건을 완화하여 보세공장 간 물류 원활화 지원

- **[현 황]** 원재료 등 상호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 간 물품 반출입 시
 - 둘 중 하나라도 우수업체*이고, 최근 3개월간 반출입 횟수가 월평균 20회 이상인 경우, 우수업체에 대해서만 보세운송 자동수리 특례 부여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90점 이상 우수업체
 - 상호 간 반출입이 월평균 10회 미만으로 감소 시 특례 적용 중지
- **[문제점]** 우수업체의 통제하에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도 자동수리가 배제되어 공휴일·야간 원재료 긴급 투입 곤란 등 물류지체 발생
 - 또한, 우수업체라도 처음 거래하는 보세공장 간에는 3개월 월평균 20회를 충족할 때까지 특례 비적용으로 물류 지체 발생
- **[규제혁신]** 우수업체인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은 반출입 횟수에 관계 없이 자동수리될 수 있게 보세운송 특례 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자동수리 요건	① 둘 중 하나라도 AEO 또는 법규수행 우수인 경우 우수업체만 + ② 최근 3개월 반출입 월평균 20회 이상	① 둘 중 하나라도 AEO 또는 법규수행 우수인 경우 우수업체만 + ② 최근 3개월간 반입정지(과징금), 통고처분, 고발, 송치가 없는 경우

- **[기대효과]** 보세공장 간 원재료 반출입 신속화로 업무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물류이동에 따른 수출물품 제조·가공 기간 단축

■ **[사례]** 반도체 보세공장 E사는 우수업체임에도 높은 보세운송 자동수리 특례기준 때문에 일부 신규 거래업체와는 자동수리가 불가능해서 물류지체가 발생했었다. 이번 특례기준 완화로 신규 거래업체도 즉시 특례적용을 받게 돼서, 주말이나 야간에 신속한 반출입, 원료 적기 투입과 공기 단축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

3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 검사 허용

◇ 장외작업으로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을 장외작업장에 장치한 상태로 수출입 신고하는 경우 장외작업장 관할세관에 신고하게 하여 불필요한 화물 이동 방지

- **[현 황]** 장외작업 허가를 받아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을 장외작업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하는 경우,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에 신고하고 검사 선별 시 원보세공장으로 반입
- **[문제점]** 검사대상 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원보세공장으로 물품을 반입했다가 장외작업장으로 복귀하는 불필요한 화물 이동 발생
 - 비효율적인 절차로 인한 통관소요시간 및 물류비용 증가
 - 수출입 통관 관련 고시에서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 또는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입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상충
- **[규제혁신]** 장외작업장 장치 상태로 수출입통관 시 장외작업장 관할세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검사대상물품 원보세공장 반입 의무 폐지

구 분	현 행	개 선
장외작업장 장치 물품의 수출입신고 세관	원보세공장 관할세관	장외작업장 관할세관

- **[기대효과]** 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신고함으로써, 검사대상 선별 시 화물 이동 없이 검사 가능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적기 수출 지원

■ **[사례]** 평택 소재 보세공장 A사는 제품을 수원 소재 장외작업장에서 포장한 후에 수출하고 있으나, 수출신고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수원에서 평택 원공장으로 보세운송하여 검사를 받고 다시 수원 장외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재포장 후에 적재지로 이동해야 해서 시간·비용·인력 소요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다.

장외작업장 관할세관에 수출신고하게 되어 검사 선별 시에도 화물 이동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수출 선적이 지연될 우려가 없고, 관련 물류비도 크게 절감되었다.

4 장외작업장 원재료 직반입 시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 해외에서 반입되는 원재료를 장외작업장으로 긴급투입 시 보세공장을 거치지 않고 장외작업장으로 바로 입항전 사용신고·반입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물류 지원

- **[현 황]** 우수업체인 보세공장은 해당 보세공장으로 입항전 사용 신고가 가능하나 장외작업장은 불가능
 - 입항전 사용신고는 보세공장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 **[문제점]** 장외작업장은 입항전 사용신고가 불가능해서, 먼저 보세 공장으로 입항전 사용신고·반입 후 장외작업장으로 추가 운송·반입
 - 추가 운송·반입에 따른 원재료 긴급 투입 지체 및 비용 증가
- **[규제혁신]** 장외작업장도 입항전 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이에 따른 외국 원재료 하선절차* 마련

구 분	현 행	개 선
입항전 사용신고 가능 구역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 FTZ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 FTZ + 장외작업장

* 장외작업장으로 입항전 사용신고 → 하선신고(非보세구역장외작업장) → 장외작업장으로 운송 → 장외작업장 반입신고 시 입항전 사용신고 수리

- **[기대효과]** 해외 조달 원재료를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입항전사용 신고하여 원재료 신속 투입, 운송비 절감, 공기 단축 등 경쟁력 향상

■ **[사례]** 조선 보세공장 S사는 외국산 철강 후판에 대해 입항전에 사용신고가 불가능하여 원보세공장을 거쳐 장외작업장으로 반입하거나 수입통관 후 반입해야 했음
장외작업장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으로 원보세공장을 거치지 않고 장외작업장으로 과세보류 상태로 직접 반입할 수 있게 되어 운송비·세액 절감 및 공기가 단축됐다.

3. 우수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

①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 관세법 절차의 생략 등이 가능한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우수 보세공장에게 자율관리 혜택 부여

□ **[현 황]**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법 절차의 생략 및 혜택*이 부여되는 우수 보세공장으로서 34개가 지정됨('24.10월 기준)

* 보세운송 생략, 장외작업허가 및 반출입신고 생략, 사용신고 자동수리 혜택 등

** 보세공장 총 158개 중 자율관리 보세공장 34개, 일반 보세공장 124개

○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은 ①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②보세사 채용 + ③세관에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을 제공해야 함

□ **[문제점]** 일부 K방산업체 등의 경우 보안문제로 세관에 업무처리 시스템 열람권한을 제공할 수 없어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불가능

□ **[규제혁신]** 업무시스템 열람 협조 확약 시에도 지정 가능토록 개선

○ 세관직원의 업체 방문 시 업체 직원의 시스템 조작 등 협조로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 제출하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정 가능

구 분	현 행	개 선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	①AEO업체 + ②보세사 채용 + ③업무시스템 열람권한 제공	①AEO업체 + ②보세사 채용 + ③업무시스템 열람권한 제공 또는 열람 보장 확약서 제출(세관장 인정)

□ **[기대효과]** 보안문제로 열람권한 제공이 어려운 K방산업체 등도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아 업무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 **[가상 사례]** K방산업체 A사는 보안문제로 열람권한 제공 대신 세관직원 방문을 통한 자료열람 협조에 동의함으로써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보세운송절차 생략, 장외작업 허가절차 생략 등 혜택 적용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비용절감, 수출 실적이 증가하였다.

2 보수작업 범위 확대 및 우수업체 승인(신고) 생략

◇ 제조·가공 작업 대비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관리 우수 보세공장(종보)는 보수작업 승인(신고) 없이 보수작업 허용

- **[현 황]** HS변경 없는 보존, 포장, 라벨표시 등 단순 작업은 보수작업 가능
- 보수작업 절차는 제조·가공 절차^{사용신고}보다 간편*하며, FTZ에서는 보수작업 승인 없이 업체 기록관리만으로 보수작업 가능

* 보수작업 : 보수작업승인(신고) 신청서 제출

제조·가공 : 사용소비신고(HS, 세율, 세액 등 산출), 송품장, BL, 수입요건 구비 필요

- **[문제점]** 거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작업*들이 보수작업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수작업 포기 또는 복잡한 사용·소비신고로 진행

* 예 : 장비·기계에 소화기 등 별도 용품 단순부착, 성능검사, 각인 등

-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우수업체임에도 보수작업 승인이 필요해서 FTZ 대비 불편·복잡하고, 휴일·야간 긴급 보수 시 세관승인 곤란

□ [규제혁신]

- HS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새로운 작업형태를 보수작업으로 명시

구 분	현 행	개 선
종합보세구역 보세공장	○ 부패·손상방지(보존작업), 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선별, 분류, 포장, 용기변경, 간단한 세팅, 구성요소 조립, 제조물품 하자보수	○ 각 보수작업 통합 ○ 추가 : 장비·기계에 별도 용품 단순부착, 성능검사, 각인 표시
자유무역지역	○ 보존 작업, 선별, 분류, 용기변경, 포장, 상표부착, 단순조립, 검품, 수선 등	

※ 일반 보세창고 보수작업 : 중계무역·보세판매장공급 물품의 기능보완도 포함됨

- 자율관리 보세공장·종합보세사업장은 최초 승인(신고수리)받은 동일 품목, 동일 보수작업은 승인(신고) 절차 생략

구 분	현 행	개 선
자율관리 업체	보수작업 승인(신고) 후 작업	보수작업 승인 생략(자체 기록 관리)

□ [기대효과] 새로운 보수작업 물류산업 유치 및 작업절차 간소화

- **[가상 사례]** 중장비 제조 D사(자율관리보세공장)는 휴일에 반입된 중장비에 대한 하자보수와 필수 설치가 필요한 소화기 부착 작업을 자체 기록관리에 의한 보수작업승인 생략으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게 보수하여 수출할 수 있었다.

③ 자유무역지역 우수업체에 보세공장 수준 자율관리혜택 부여

◇ 자유무역지역 제조업체에 **보세사 채용, 원재료 수량 관리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자율관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법 위반 사전예방 및 업무 효율화**

□ **[현 황]** 자유무역지역은 보세사 채용 및 물품관리체계 전산시스템 구비가 필수요건이 아니라서 당해 조건 충족 업체는 소수에 불과

* 485개 FTZ 외국물품 취급업체 중 보세사 채용은 165개 업체에 불과('24.12월 기준)

**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사 채용 및 소요량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필수

□ **[문제점]** 자유무역지역의 자율관리체계 미비 및 역량 부족으로 범위반 적발 및 불이익 처분 사례 빈번 발생

* 최근 5년간 FTZ 업체 행정재제 현황 : 반입정지 13건, 과태료 750건

□ **[규제혁신]** FTZ내 자율관리체계를 갖춘 우수 제조업체도 자율관리 업체로 지정하여 보세공장과 동일한 자율관리 특례혜택 부여

○ FTZ 제조업체도 AEO인증, 보세사 채용, 시스템 열람권한 세관 제공 시 자율관리업체로 지정

구 분	현 행	개 선
FTZ 자율관리 요건	없 음	①AEO + ②보세사 채용 + ③시스템 열람권한 제공
FTZ 자율관리 특례	없 음	역외작업 신고 절차 등 생략, 보세운송 생략 등 자율관리 보세공장과 동일한 특례 부여

□ **[기대효과]** FTZ 업체의 자율관리 역량제고로 법 위반과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고 절차생략 등 특례로 신속한 보세가공 및 업무 효율 향상

■ **[가상 사례]** FTZ내 선박 제조업체인 Y사는 보세사 채용 등 자율관리 요건을 충족하여 자율관리 특례를 적용받게 되었으며, 이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역외작업 관련절차 등을 세관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연간 수천 건에 달했던 서류제출 생략, 업무효율성 증대, 비용절감, 신속한 공정 투입에 따른 물류비 감소 등으로 수출 실적이 증가하였다.

4 세관에 대한 보고 및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 보세가공제도별 월말, 분기 세관 보고·제출 시 일부 **촉박하게** 규정된 보고·제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점검 정확성 향상** 및 **업무 부담 경감**

□ **[현 황]** 중소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운영상황보고 등 각종 월말·분기별 세관 보고·제출 등의 기한이 5일, 10일 등으로 규정

* 기한 예시 : 중소 자율관리 보세공장 운영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5일,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작업 내역보고 매분기 익월 10일

□ **[문제점]** 보고·제출 기한이 익월 5일까지인 경우 공휴일 등을 고려하면 기한이 너무 촉박하여 자율점검 정확성 저하 및 업체 부담

* 예시 : '24년 10월5일 제출기한인 경우 자료 작성가능 근무일수는 2일에 불과함

□ **[규제혁신]** 보고·제출 등의 **촉박한 기한을 연장**하고 규정별로 각각 다른 기한들을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

○ 기한이 5일 이내인 보고·제출 기한을 10일로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보세공장장외작업 완료보고 중소자율 보세공장 운영상황보고 보세공장건본품 반입	허가기한부터 5일 이내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허가기한부터 10일 이내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 **[기대효과]** 보세가공 관련 세관 보고·제출 기한 연장으로 업체의 자율점검 정확성 향상 및 업무 부담 경감

■ **[가상 사례]** S전자 협력업체인 중소자율관리 보세공장 B사는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운영상황보고 작성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촉박한 기한에 쫓기지 않게 되어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4. 비용 및 물품관리 부담 경감

1. 잔존물품^{잉여물품} 관리 및 과세방식 간소화

◇ 내·외국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잔존 포장재·용기·원재료에 대해 **혼용비율** 또는 **설계 손모량**에 따른 재고관리 허용으로 잔존물품 구분관리 부담 해소 및 효율성 제고

□ **[현 황]** 보세가공 후 버려지는 포장재, 용기, 잔존 원료 등 잔존 물품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내·외국물품으로 구분관리하고, 외국 잔존물품^{잉여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통관 필요

□ **[문제점]** 실질 가치가 있는 잔존물품은 제조공정 내내 지속적으로 내·외국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효율성도 저하

○ 정확한 수입신고를 위한 구분관리에 필요한 공간 부족과 많은 노력과 인력이 투입되는 반면 실질적 가치가 낮아서 세수효과*는 미미

* 예시 : 외국 포장박스 1톤이 최저 징수금액(1만원) 세수 실익 발생

□ **[규제혁신]** 동일한 HS 품목으로서 내·외국 구분이 곤란한 잉여물품은 구분 없이 통합관리하고, **혼용비율** 또는 **설계 손모량***으로 재고관리 허용

* 조선업 등에서 철강 후판 설계 손모량은 실제 손모량과 차이가 없어 실무상 동일 취급

구 분	제조 원재료가 아닌 잔존물품	제조에 직접 투입된 후 잔존 원재료
대 상	포장박스, 빈 용기, 강통 등	금속 원재료 스크랩 등
방 법	전체 원재료 중 외국 원재료의 혼용 중량비율 적용	제품 설계 시 산출되는 외국물품 손모량 에 따라 재고관리
예 시	포장박스 1,000kg(가격 10만원), 전체 원재료 중량비율 내국(3):외국(7) ⇒ 포장박스 수입통관 700kg(7만원)	외국산 철강 후판 10톤, 설계 손모량 (스크랩) 400KG (400원/KG) ⇒ 잉여물품 수입통관 400kg(16만원)

□ **[기대효과]** 잔존물품의 내·외국 구분 보관 불필요 및 관리 부담 해소로 작업 효율성 향상, 비용절감, 신속 반출, 공간활용, 신속 제조 가능

■ **[가상 사례]** 보세공장 H조선사는 원재료 포장박스와 작업 후 잔존 철강 원재료의 수입통관을 위해 각각 **별도 장소에 내·외국물품 구분 보관**하면서, 전 공정에서 **내·외국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 왔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한 장소에서 **내·외국 구분없이 통합 보관·관리**하고 수입신고가 간소화됨에 따라 **공간활용, 비용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생산 속도도 향상**되었다.

②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료과세 도입

◇ FTZ에서 생산 제품 수입 시 제품이 아닌 투입된 **외국원료에 대한 과세방식도** 추가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FTZ 제조 활성화 지원

□ [현 황] FTZ 생산 제품을 수입 시 생산 제품에 대한 과세만 가능

- 보세공장에서는 제조 전에 미리 승인받은 경우, 투입된 외국 원료의 성질·수량으로도 과세 가능(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 (예시) 세율차에 따른 원료과세와 제품과세 비교 >

세 율	보세공장	FTZ
외국 원료 : 저세율 생산 제품 : 고세율	○ 원료과세 선택 가능 - 외국 원료 저세율로 과세(유리)	○ 제품과세만 가능 - 제품 고세율로 과세(불리)

□ [문제점] 제품과세는 생산에 투입된 원료뿐만 아니라 비용·이윤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원료과세에 비해 불리

- 또한, 제품과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낮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어려워 FTZ 입주 제조업체에게는 2중으로 불리

□ [규제혁신] FTZ에서 생산한 제품 수입 시에도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원료과세 가능하도록 관세법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 도출

구 분	현 행	개 선
FTZ 생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기준	① 제품과세	① 제품과세 + ② 원료과세 선택 가능

□ [기대효과] FTZ에 제조기업 신규 유치 확대 등 FTZ를 활용한 제조 및 수출입 활성화에 기여

- [가상 사례] FTZ 입주업체 A사는 미국산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 왔으나, FTZ 생산물품에 대한 원료과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미국산 원료에 대해 한·미 FTA의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③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도입

◇ FTZ에서 내·외국원재료를 혼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입주 제조업체의 관세부담 경감

- **[현 황]**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통관 시 제품가격에서 내국 원재료의 가격만 공제해서 과세가격 결정
- 보세공장에서는 제조 전에 미리 승인받은 경우, 제품가격에서 투입된 외국 원재료의 가격 비율로 과세가격 결정 가능

< (예시) FTZ과 보세공장 과세방식 비교 >

외국 원재료	내국 원재료	생산 제품	과세가격	
			FTZ	보세공장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비용, 이윤 등 포함)	200만원*	150만원**

* 생산 제품(300) - 내국 원재료(100) = 200

** 생산 제품(300) × $\frac{\text{외국 원재료}(100)}{\text{외국 원재료}(100) + \text{내국 원재료}(100)}$ = 150

- **[문제점]** FTZ는 보세공장에 비해 관세가 많이 부과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자유로운 제조·물류 목적의 FTZ 취지와 거리가 있음
- **[규제혁신]**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시 보세공장과 동일한 과세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 도출

구 분	현 행	개 선
FTZ 생산 제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제품가격에서 내국 원재료 가격만 공제	제품가격에서 외국 원재료 가격 비율 로 결정

- **[기대효과]** 보세가공제도 간 조세 형평성 유지 및 FTZ 제도를 활용한 제조·가공 확대, 내국 원재료 사용 촉진 및 수출입 활성화

■ **[사례]** FTZ내 제조 A사는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통관 시 **외국 원재료 비율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으로 납부세액이 감소했으며, 이런 이점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 **내국 원재료의 사용 비율을 확대했다.**

4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을 국내 반품 시 수입신고 생략

◇ 자유무역지역으로 납품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품하는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성 개선

- **[현 황]** FTZ에 반입한 내국물품을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대체하는 경우
 - 동종동질 대체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 없이 반입한 후 내국 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 대상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
- **[문제점]** 대체품 반입 없이 관세영역의 원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FTZ법*에 따라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
 - * §29⑤: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수입신고
 - 「관세법」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하자 등 사유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 면세되나, FTZ에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반품 시 불합리한 과세 부담
- **[규제혁신]**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물품에 한해 반입신고서의 정정·취하로 수입통관이 필요없는 ‘내국물품’으로 전환

구 분	현 행	개 선
대체품 없이 원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납부	반입신고서 정정·취하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미발급 물품에 한함)

- **[기대효과]**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부담 해소

■ [가상 사례] 물품 공급업체 A사는 자유무역지역에 공급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대체품 없이 반품되는 경우 기존에 수입신고하였으나, 관련고시 개정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입신고를 취하하는 것만으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게 되어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품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부담이 해소됨

IV.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시행 시기
1. 보세가공 활용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①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25.1분기
② 조선·항공·플랜트 장비·원자재 등 보관 부두의 보관기한 폐지	일부 시행 및 '25년 지속 발굴
③ 자유무역지역, 중량 단위 거래 물품의 분할·합병 관리 허용	'24.9.30 기시행
④ 석유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신고 간소화	'25.1분기
2. 신속한 보세가공을 위한 물류 혁신	
① 단일보세공장 특허 시 거리제한 완화(15km → 30km)	'25.1분기
② 우수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	'25.1분기
③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검사 허용	'25.1분기
④ 장외작업장 원재료 직반입 시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25.1분기
3. 우수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	
①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25.1분기
② 보수작업 범위 및 우수업체 승인(신고) 생략	'25.1분기
③ 자유무역지역 우수업체에 보세공장 수준 자율관리혜택 부여	'25.2분기
④ 세관에 대한 보고 및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25.1분기
4. 비용 및 물품관리 부담 경감	
① 잔존물품 ^{잉여물품} 관리 및 과세방식 간소화	'25.1분기
②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재료과세 도입	'25.2분기
③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도입	'25.2분기
④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 국내 반품 시 수입신고 생략	24.9.30 기시행